

2022년 1월 8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교회를 모아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사도행전 Acts 14:26-28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at they had fulfilled.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And when they arrived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and how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And they remained no little time with the disciples.

지도: 제1차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들은 구브로 (키프로스, Cyprus) 섬에 들어가, 섬 동쪽 끝 살라미(Salamis)에서 마가요한(John Mark)을 수행자로 얻었습니다. 섬 서쪽 끝 바보(Paphos)에서 총독(proconsul)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에게 그리스도를 증거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Pamphylia Province) 버가(Perga)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마가요한이 선교팀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Bisidia)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Iconium), 루스드라(Lystra), 그리고 더베(Derbe)까지 갔습니다.

더베에서 돌이켜 루스드라(Lystra), 이고니온(Iconium), 비시디아 안디옥(Antioch Bisidia), 그리고 버가(Perga)까지 돌아보고, 버가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Syria) 해안에 이르러, 시리아 안디옥(Antioch Syria)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 때 방문한 도시들과, 거기서 세운 교회들은 수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심했습니다. 죽음 문턱에 이르도록. 그렇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with all their hearts)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디옥교회(Antioch Church)는 선교지의 입장에서 보면 “모교회” (mother church)입니다. 모교회를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지를 자식이라고 보면, 모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안디옥교회에 돌아와 한 일을 세 가지로(three things) 나누었습니다.

1. 첫째는 “교회를 모아” (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And let us consider how to stire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not neglecting to meet together, as is the habit of some, bu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drawing near.
히브리서 Hebrews 10:24-25

성령에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And day by day, attending the temple together and breaking bread in their homes, they received their food with glad an generous hearts.
사도행전 Acts 2:46

2. 안디옥교회에서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한 일” 입니다.

선교보고입니다. 모교회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안디옥교회에서 세 번째 한 일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음” 이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는 모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같이 오래 지낸 것” 입니다.

이들 두 사도가 실시한 것은 보편적인 목회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목회사역은 1. 교회를 모으는 일과, 2. 선교사역을 보고하는 외에, 3. 함께 오래 지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Antioch,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for the work that they had fulfilled.

안디옥교회(Syria Antioch Church)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사도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들 두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 (they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을 빌었습니다. 모든 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로마서 Romans 1:7b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And when they arrived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and how he had opened a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그들이 안디옥교회(Antioch Church)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여정은 파송하는 모교회를 중심으로 “IN and OUT” 하고, 다시 “OUT and IN”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실시한 이 패턴은 이후 모든 선교사들 파송의 원리(missionary sending principle)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모았습니다(they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교회를 모았다 함은,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오순절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모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과, 수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두 선교사들은 선교보고(mission report)를 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2.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들 두 가지 보고내용은, 이후 이들 두 선교사들이 예루살렘교회(Jerusalem Church)를 방문하여 보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일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SF Bay area)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역사를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였습니다. 콜롬비아선교(Colombia mission)가 그 첫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 가서 “교육선교” (mission education)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동행하여 태권도선교(Taekwondo mission) 사역과 영어성경캠프(English Bible camp) 사역에 동참한 우리교회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후사가수가(Fusagasuga)에 위치한 신학교만 아니라, 신학생들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 교회와 사역기관에도 참여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지원했습니다.

후사가수가 시내에 있는 장로교회와 윌리엄(William) 목사, 그리고 정신병원이 있는 마을의 미겔 앙헬(Miguel Angel) 전도사, 그리고 게릴라 점령지대에서 사역하는 하이로 메사(Hayro Mesa) 등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교회 교육선교에 관계된 콜롬비아 목회자들과 교회는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사랑과은혜교회” (Amor y Gratia Iglesia)입니다. 이 교회는 보고타 산지(hillside of Bogota)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2층 건물을 올리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주중에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도 배우고 공부도 합니다.

또한 후사가수가에서 두 시간 떨어진 이바게(Ibague)에 있는 “아메리칸스쿨” (American School) 성경공부사역에도 참여했습니다. 후사가수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하이메(Haime)가 교장으로, 또 신학생 출신 부부가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이메 교장 후임으로 온 사무엘(Samuel) 교장 때 우리교회에서 여섯 명 훈련 받은 사역팀이 참가하여 한 주일 동안 “영어성경캠프” (English Bible Camp)를 통해 말씀양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현지 각 가정에서 제공하는 숙식을 통해 현지인들과도 깊은 영적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여권(passport)이 든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 일부는 귀국일정을 미루고 보고타(Bogota)에서 한인교회(Korean-Colombian church) 사역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여권을 되찾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 안팎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로 간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아데디오스(Agua de Dios)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한센병(Hansen) 환자들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병환자 병원을 방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센병 시인 “첼리타” (Chelita)를 만났고, 그의 시집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집을 통해 콜롬비아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 캠프를 아구아데디오스에 열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첼리타 할머니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첼리타 시집은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옴기와 연결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뵈는 영성입니다.

콜롬비아 사역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육선교적 전환점” (turning point of mission education)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던 사역 대신에, 신학생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 스스로 동족을 가르칠 수 있는 선교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두 명이 목회학박사(DMin) 학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공부의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엑토르(Hector) 교수는 보고타개혁신학교(Bogota Reformed Seminary)에서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강의를 계속하는 것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선교패턴, 즉 교육 받은 현지인이 현지인을 가르치는 성숙한 교육선교의 길입니다.

1885년에 시작된 한국선교(Korea mission)가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미 선교사들에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전략을 아프리카(Africa)에도 적용했습니다. 아프리카는 2010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도 방문했는데, 그 때부터 두 가지 선교전략을 세웠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콜롬비아처럼 신학생을 불러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아폴리네리(Appolinaire) 목사님이 7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버클리신학대학원(Berkeley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석사(MDiv)와 목회학박사(DMin)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UCSF에서 1년 풀타임 과정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과정도 마쳤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African children)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거의 20명을 유지하면서 지원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난 해 12월로 다섯 명의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1. Itangishaka Emmanuel. 고등학교
2. Rukundo Emmanuel. 대학교
3. Twahirwa Nadia. 고등학교
4. Bukeyirwanda Benito. 고등학교
5. Tuyishimire Chantal. 고등학교

그제 금요일에 아프리카로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이들은 절약하여 가축을 구입하여 기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섯 명이 졸업했고, 열여섯 명에게 학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엘 신학생이 한 명의 여자 대학생을 소개했습니다. Kariza Chirstine입니다.

Kariza는 대학에 등록하여 한 학기를 공부했지만, 더 이상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르완다(Rwanda)는 대학이 3년 과정이고, 1년에 세 학기, 모두 아홉 학기 공부합니다. 한 학기에 등록금이 대략 210불 정도입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여덟 학기가 남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학생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영역은 러시아(Russia)와 멕시코(Mexico), 그리고 중국(China)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멕시코는 티후아나(Tijuana)와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던 것과, 멕시코(Mexicali) 지역의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신학교 관리작업을 도왔던 일을 포함합니다.

중국(China)은 2009년에 시작하여 선교사들이 추방되던 해까지 매년 현지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에 핍박이 가중하고 있지만, 복음의 씨앗은 놀랍도록 성장하여 열매를 거둘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미국 내 원주민(Native American) 선교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후파제일침례교회(Hoopa First Baptist Church)와 우리교회가 자매결연(Sisterhood)을 맺었고, 여태까지 두 차례의 여름성경학교(VBS)와, 매달 실시하는 방문선교, 그리고 팬데믹 이후 시작된 온라인예배와 성경공부 사역으로 매주 주일 예배와 화요일 성경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전부터 애비뉴스 양로병원(Avenues Nursing Home)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비 마틴 집사님이 전방위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수요일과 세 번째 수요일에 성경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차례는 온라인으로, 한 차례는 방문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선교사역은 금문교회 홀로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 동역사역(Co-Mission)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교육선교기금(MEF, Mission Education Fund)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와 개인이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들 외에 프레즈노장로교회(Fresno Presbyterian Church)와 오클랜드우리교회(Oakland Uri Church), 필라델피아 영생교회(Philadelphia Youngsang Church) 등이 동참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였습니다.

금문교회의 선교사역은 한-영 주일예배(English worship, Korean-English worship)와 주중 영어성경공부(weekday Bible studies)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라인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에 베이지역 외에 여러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후파성경공부(Hoopla Bible study)와 목요일 영어성경공부(Thursday Bible study)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다인종들이 우리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알멘드, 조이, 그리고 콘라드 등은 적극적인 참여자들입니다.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And they remained no little time with the disciples.

금문교회는 교회 자체의 양육과 성장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말씀을 강해하는(expository) 설교를 계속 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다인종 성도들을 섬기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통한 지속적인 말씀과 성경공부 사역이 그 바탕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금문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목회의 근간(root of ministry)은 “함께 오래 있는 것” (to be with)입니다. 어떤 “행사” 나 “활동” 이 목회내용이 아닙니다. “함께 지내는 것” (being together)입니다.

일전에 콜롬비아(Colombia) 선교사로 은퇴한 김위동(Rev. W Dong Kim) 선교사님이 “임마누엘” (Immanuel)의 신비를 증거 했습니다. 모든 목회와 선교사역의 핵심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요한복음 John 1:14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 제자들(교인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는 바울과 바나바가(Paul and Barnabas)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한 모교회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온 사도행전 본문말씀을 읽고 증거 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금문교회가 실시했던 교육선교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The mission must go on).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선교대명령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치지 말아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Jesus came and said to them,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마태복음 Matthew 28:18-20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모교회 안디옥교회에 돌아온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선교여행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친 것입니다. 금문교회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금문교회의 부흥을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의 일군이 필요하오니, 주여 많은 추수군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